

일자리

I. 일자리 정책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12.9.3.)

-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 또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
- 주요 내용
 - 공공공사 시작 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당해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퇴직공제부금을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5세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2년 상반기에 1만 4천여 명 무기계약직 전환

- 중앙행정기관(45개소), 자치단체(246개소),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24개소) 및 교육기관(10,031개소)에 고용된 비정규직 14,854명이 2012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당초 2012년 상반기 전환계획(14,436명)에 비해 418명이 추가된 수치

-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28.)에 따라 기관별로 이뤄진 것
- 각 기관에서 입력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및 2012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 1천 명, 자치단체 1천 명, 공공기관 3천 명, 교육기관 1만 명이 전환
- 또한, 2012년 하반기 8천 명, 2013년 4만 1천 명을 포함하여 약 6만 4천 명이 전환될 계획이며,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금번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어 2013년 이후 전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
- 특히, 기관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보면 한국특허정보원(309명), 인천항보안공사(83명), 창업진흥원(35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27명) 등은 비정규직 전원 또는 거의 대다수를 2013년까지 전환할 계획
-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관별 고용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비정규직 대책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2년 미만 불법파견 근로자 93명 직접 고용조치(2012.9.4.)

-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파견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개정파견법(2012.8.2 시행)의 최초 적용 사례 적발
-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씨제이 대한통운(주)과 (주)뉴로시스 등 5개 업체에서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근로자 123명을 사용업체가 즉시 직접 고용토록 조치. 여기에는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 93명도 포함되어 개정파견법의 최초 적용사례가 됨.

-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12억 3천만 원(1인당 1천만 원)을 부과

□ **여름방학 기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894개소 점검결과 발표(2012.9.4.)**

-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7.9~8.10) 동안 연소자, 대학생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 894개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
 - 점검 결과, 금품청산·최저임금·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 주요 법 위반 건수가 659건으로 나타나 4억 3천만 원의 체불금품을 지급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성희롱과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위반건수는 343건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을 보면,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위반 736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574건 등으로 나타남.
- 앞으로 방학기간뿐만 아니라 학기 중 등 상시 점검체제로 개편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3년 이내에 동일 법 위반이 재발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
- 이와 함께 청소년 등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설치된 안심알바 신고센터(2012.8월 현재 111개소)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확대·설치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리더(2012년 중·고생 145명)를 확대·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

□ 「제33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2012.9.6.)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등 마련

- 2013년 추진될 “제3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에서는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중앙부처 사업과 함께 효율화 대상에 포함하여 전체 사업간 유사·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을 검토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참여 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 공공근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예: 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사업 내실화 및 연계 강화
 - 취약계층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사업 또한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광역 단위로 목표관리 제도(전체의 70%)를 도입·운영
 - 「일모아 시스템」을 전면 개편, 일하기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일자리망과 복지망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일을 통한 복지 구현” 지원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산업정책과 인력양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운영

□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대책」 국무회의 보고(2012.9.9.)

-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소속이 없고 이동이 잦아 취업 정보나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취업지원패키지를 별도로 마련
 - 취업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화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실시(2만 명, 수당 제공)
 - 기초 교육기관별로 전담 고용센터를 지정하고 담당자를 교육장에 직접 투입할 예정. 담당자는 구직자에게 취업하이패스 티켓(고용센터 방문 시 즉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나눠주고, 각종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구직등록 신

청도 받음.

- 고용센터에는 건설 특화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이곳을 찾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재정지원 일자리 등과 연결해 줄 계획
- 특히, 건설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거나 훈련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자부담을 없애고 희망하는 시간에 수시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함. 취업성공패키지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취업 성공 시 수당(100만 원)도 지급하기로 함.

○ 민간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

- 소개비 지원 사업 확대
- 민간위탁 건설인력 취업지원 활성화
-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 건설 일용근로자 편의 및 복지 증진

- 새벽인력시장 간이쉼터 확충 (6개소, 1억 5천만 원)
- 동절기 생활자금 대부사업 실시 (2만 명, 170억 원)
- 건설근로경력 홈리스 대상 자립촉진사업 실시 (신규, 2,500명)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합리적인 건설현장 외국인력 규모 관리

-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강화
- 건설업 내국인 일자리 보호 강화
- 건설현장 지도·점검 강화

□ 「2013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2012.9.13.)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조기 도입

-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예년보다 3개월 정도 앞당겨 확정된 것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농축산업 등에 신속한 인력공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
- 2013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올해보다 5천 명이 늘어난 6만 2천 명으로 결정
 - 귀국예상자에 대한 대체 수요(3만 9천 명) 외에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추가수요(2만 3천 명)를 적극 반영
 - 일반 외국인력(E-9) 6만 2천 명은 신규입국자에 5만 2천 명, 재입국자에 1만 명을 배정하고, 업종별로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고용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배정
- 총 체류규모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 문제 등을 감안, 2012년과 동일한 30만 3천 명 수준을 유지
- 2013년 도입인력 중 일부에 대하여는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입국절차를 진행

□ 제4차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 개최(2012.9.13.)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
-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장관과 경제단체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때 더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

□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2012.9.21.)

○ 「강소기업 발굴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10월 8일부터 청년들이 선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 1만5천여 곳을 워크넷에서 소개
- 워크넷에 등재될 강소기업들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굴·선정한 것으로 전체 중소기업 3백만여 곳 중 0.5%에 해당하는 규모
- 강소기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3만8천여 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이력,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과 고용유지율,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강소기업 정보는 일자리 친화, 기술력, 재무건전성, 글로벌역량, 지역선도, 사회적 가치 등 기업의 강점을 6개 분야로 나눠서 제공,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계획
- 또한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신용등급, 자기자본 이익률 등 5가지 항목을 동일 업종의 대기업과 그림으로 대비해서 보여주는 등 강소기업의 장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 중
- 아울러 강소기업과 구직자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채용담당자와의 한마디’를 운영하고 구직자가 관심기업을 등록하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를 SMS로 발송해주며 지역 내 강소기업의 실시간 채용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할 예정

□ 2013년 ‘일자리 예산(안)’을 편성(2012.9.24.)

○ 정부는 10조8천억 원에 달하는 2013년 일자리 예산(안)을 편성

-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여 전년 9조9천억 원보다 8천5백억 원(8.6%)을 증액
- 2013년 정부 총지출 342조 5천억 원 기준 3.15%에 해당
- 2012년 일자리 예산 대비 증가율은 8.6%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높은 수준

- 2013년 일자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적극 강화하는 것임.
- ①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
- ②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강화
- ③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
- ④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설정·운영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 및 고용·산재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10.1.~ 10.31 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운영
-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
-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 제공
-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년의 희망, 강소기업에서! 광주 전라 박람회’ 개최(2012.9.15~16.)

-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을 만나고, 현장에서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채용박람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 5월, 대구 경북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차례로 개최된 “청년의 희망, 강소기업에서!” 시리즈의 마지막 채용박람회임.
- 박람회에는 지난 8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을 포함하여 광주 전라 지역 강소기업 60개사가 참가하고 지역 인재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채용을 시행

□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 개정(2012.10.12.)**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영 전문성이 취약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함.
- 10월15일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예비 사회적 기업에도 전문 인력이 지원되고,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최대 5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
-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에도 시행
-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도 강화

□ **「2012 해외취업박람회」 개최(2012.9.23.)**

-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개최
 - 세계 대륙별로 채용관을 운영

- 행사 현장에서는 구인·구직자간 심층 인터뷰를 하여 취업과 곧바로 연계
- 채용행사 외에도 박람회에서는 취업전문가 컨설팅, 해외취업 성공사례, 세미나(성공취업 전략), 직업심리검사 등 다채로운 해외취업 진로프로그램을 진행

□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2.10.23.)**

-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 「2012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개최(2012.10.30~31.)

- aT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개최
-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신입과 경력을 채용하는 90여 개 중소기업이 1,600여 명을 채용
- 특히, 최근 경기침체, 외국인력 유입 등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전담 부스가 마련되고 현장면접 진행
- 이번 박람회는 행사 당일에 방문하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즉석에서 만나 면접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매칭 → 행사당일 면접 → 미채용기업 사후관리” 3단계의 프로세스로 차별화.

II. 일자리 통계

□ 2012년 9월 고용률은 60.0%,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현황 개선

- 2012년 9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7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만 9천 명 증가
- 2012년 9월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 취업자는 2,500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만 5천 명 증가
-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 실업자는 75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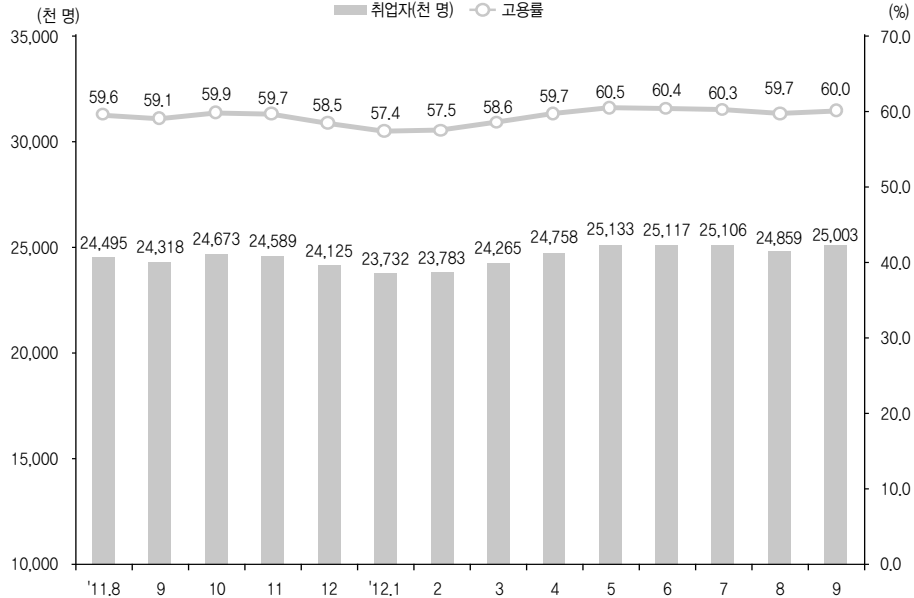
표 1. 주요 고용 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1,140	1.1	41,664	1.3	41,696	556	1.4
- 경제활동인구	25,076	0.7	25,623	1.4	25,755	679	2.7
참가율	61.0		61.5		61.8	0.8p	
· 취업자	24,318	1.1	24,859	1.5	25,003	685	2.8
고용률	59.1		59.7		60.0	0.9p	
· 실업자	758	-11.6	764	0.2	752	-6	-0.8
실업률	3.0		3.0		2.9	-0.1p	
- 비경제활동인구	16,065	1.9	16,042	1.1	15,942	-12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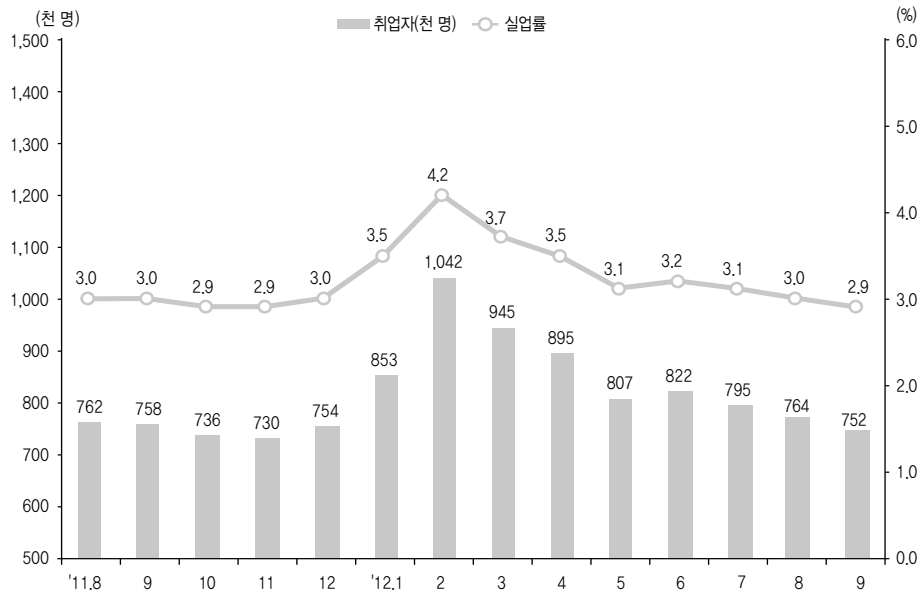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10), 『2012년 9월 고용동향』.

그림 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2.10), 『2012년 9월 고용동향』.

그림 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2.10), 『2012년 9월 고용동향』.

□ 남·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와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여성 고용률 증가가 보다 뚜렷

- 성별 고용률은 남자 71.3%, 여자 49.1%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p, 3.3%p 상승
 - 취업자는 남자의 경우 1,45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 9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47만 3천 명으로 33만 6천 명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 취업자는 20대에서 5만 6천 명 10대에서 3천 명이 감소하였고,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50대 32만 6천 명, 60대 이상 29만 3천 명 증가

표 2.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24,318	59.1	24,859	59.7	25,003	60.0	685	2.8p
성별	남자	14,180	70.5	14,498	71.2	14,530	71.3	349	2.5p
	여자	10,138	48.2	10,361	48.6	10,473	49.1	336	3.3p
연령	15~29세	3,834	40.1	3,868	40.7	3,775	39.7	-59	-0.4p
	· 15~19세	203	6.1	268	8.1	200	6.1	-3	0.0p
	· 20~29세	3,632	58.5	3,600	58.0	3,575	57.6	-56	-0.9p
	30~39세	5,736	71.7	5,761	72.9	5,800	73.5	64	1.8p
	40~49세	6,589	78.1	6,604	78.1	6,650	78.6	61	0.5p
	50~59세	5,118	71.3	5,358	71.9	5,444	72.9	326	1.6p
	60세이상	3,041	38.1	3,268	39.1	3,334	39.9	293	1.8p
학력	중졸 이하	4,971	39.7	4,932	40.1	4,996	40.3	26	0.7p
	고졸	9,549	61.2	9,782	61.5	9,779	61.9	230	0.7p
	전문대졸	3,136	74.0	3,304	74.6	3,394	75.6	258	1.6p
	대졸 이상	6,662	75.9	6,841	75.6	6,834	75.8	172	-0.1p

자료: 통계청(2012.10), 『2012년 9월 고용동향』.

□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임시근로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1,78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714만 1천 명으로 2.9% 증가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2.7%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7% 감소
 -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1천 명, 1.9%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급감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급증
 - 이는 작년 추석 연휴가 조사 대상 주간에 포함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침.

표 3.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 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24,318	100.0	24,859	100.0	25,003	100.0	685	2.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378	71.5	17,734	71.3	17,862	71.4	484	2.8
	· 상용근로자	10,764	44.3	11,203	45.1	11,291	45.2	527	4.9
	· 임시근로자	5,047	20.8	4,935	19.9	4,961	19.8	-86	-1.7
	· 일용근로자	1,567	6.4	1,595	6.4	1,610	6.4	43	2.7
	비임금근로자	6,940	28.5	7,125	28.7	7,141	28.6	201	2.9
	· 자영업자	5,692	23.4	5,803	23.3	5,803	23.2	111	1.9
	· 무급가족종사자	1,248	5.1	1,322	5.3	1,338	5.4	90	7.2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15,672	64.4	7,275	29.3	3,327	13.3	-12,345	-78.8
	36시간 이상	8,050	33.1	16,837	67.7	21,340	85.4	13,290	165.1
	일시휴직	596	2.5	747	3.0	336	1.3	-261	-43.7

자료: 통계청(2012.10), 「2012년 9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377만 5천 명, 고용률 39.7%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5만 9천 명, 고용률은 0.4%p 감소
- 연령별 고용률은 25~29세가 2.3%p 감소한 반면, 15~19세는 변화가 없고, 20~24세의 경우 2.3%p 증가
 - 연령별 취업자는 20~24세가 전년 동월 대비 13만 명 증가한 반면, 15~19세는 3천 명, 25~29세는 18만 6천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취업자와 고용률이 감소. 남자의 경우 취업자는 3만 4천 명, 고용률은 0.8%p 감소하였고, 여자의 경우 취업자는 2만 5천 명, 고용률은 0.1%p 감소
-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경우 취업자가 3만 7천 명, 고용률은 0.8%p 감소. 반면 전문대졸자는 취업자가 2만 9천 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하여 고용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대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 수는 5만 9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3.2%p 감소

표 4.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3,834	40.1	3,868	40.7	3,775	39.7	-59	-0.4p	
연령별	15~19세	203	6.1	268	8.1	200	6.1	-3	0.0p
	20~24세	1,122	42.1	1,249	44.3	1,253	44.4	130	2.3p
	25~29세	2,509	70.9	2,351	69.4	2,323	68.6	-186	-2.3p
성별	남자	1,805	38.4	1,845	39.2	1,771	37.7	-34	-0.8p
	여자	2,029	41.8	2,023	42.1	2,004	41.7	-25	-0.1p

〈표계속〉

		2011.9		2012.8		2012.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학력	중졸 이하	98	3.6	99	3.8	106	3.9	8	0.3p
	고졸	1,520	39.3	1,621	40.6	1,483	38.6	-37	-0.8p
	전문대졸	1,035	77.0	1,016	76.7	1,063	78.2	29	1.1p
	대졸 이상	1,182	73.8	1,131	71.1	1,123	70.5	-59	-3.2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5만 2천 명(1.4%) 감소하였고 비임금근로자도 8천 명(2.8%) 감소
 -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5.2%, 자영업자는 9.9% 감소

표 5.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 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3,834	100.0	3,868	100.0	3,775	100.0	-59	-1.5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558	92.8	3,586	92.7	3,506	92.9	-52	-1.4
	· 상용근로자	2,147	56.0	2,126	55.0	2,154	57.1	7	0.3
	· 임시근로자	1,158	30.2	1,137	29.4	1,098	29.1	-60	-5.2
	· 일용근로자	253	6.6	323	8.4	254	6.7	1	0.6
	비임금근로자	276	7.2	281	7.3	269	7.1	-8	-2.8
종사상 지위	· 자영업자	199	5.2	195	5.1	179	4.8	-20	-9.9
	· 무급가족종사자	77	2.0	86	2.2	89	2.4	12	15.4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2,729	71.2	1,352	35.0	580	15.4	-2,150	-78.8
	36시간 이상	1,030	26.9	2,428	62.8	3,144	83.3	2,113	205.1
	일시휴직	75	1.9	88	2.3	51	1.4	-23	-30.9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고령층 취업자는 54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명, 고용률 1.9%p 증가
 - 고용률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p,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2.9%p로 가장 크게 증가

표6. 고령층(55~7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5,026	49.6	5,393	50.7	5,486	51.5	460	1.9p
성별	남자	2,953	62.6	3,156	63.5	3,210	64.5	257	1.9p
	여자	2,073	38.3	2,237	39.5	2,276	40.1	204	1.8p
학력	중졸 이하	3,052	47.1	3,204	48.2	3,261	49.0	209	1.9p
	고졸	1,404	53.8	1,553	54.5	1,570	55.1	165	1.3p
	전문대졸	93	62.0	99	59.0	109	59.7	16	-2.3p
	대졸 이상	476	53.6	538	55.3	546	56.5	70	2.9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5.1% 증가함.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0.5%, 17.0%, 12.3%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3.9%, 무급가족종사자는 9.8% 증가

표 7.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 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026	100.0	5,393	100.0	5,486	100.0	460	9.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469	49.1	2,713	50.3	2,799	51.0	331	13.4
	· 상용근로자	1,040	20.7	1,142	21.2	1,150	21.0	110	10.5
	· 임시근로자	957	19.0	1,086	20.1	1,120	20.4	163	17.0
	· 일용근로자	472	9.4	485	9.0	530	9.7	58	12.3
	비임금근로자	2,557	50.9	2,681	49.7	2,687	49.0	130	5.1
	· 자영업자	2,063	41.0	2,142	39.7	2,144	39.1	81	3.9
	· 무급가족종사자	494	9.8	538	10.0	543	9.9	49	9.8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2,895	57.6	1,640	30.4	1,211	22.1	-1,684	-58.2
	36시간 이상	1,994	39.7	3,590	66.6	4,201	76.6	2,207	110.7
	일시휴직	136	2.7	164	3.0	75	1.4	-62	-45.4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실업자는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변화 없음

- 성별 실업자는 남자는 47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28만 1천 명으로 변화 없음.
 - 실업률은 남자 3.1%, 여자 2.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2%p, 0.1%p 감소
- 연령별 실업자 규모는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 실업률 또한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0~39세는 0.4%p, 60세 이상은 0.5%p 감소
-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중졸 이하에서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고졸 4천 명, 전문대졸 1만 2천 명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 3만 5천 명 증가
 -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전년 동월 대비 0.5%p, 고졸에서 0.1%p, 전문대졸에서 0.6%p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 0.4%p 증가

표 8.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률	
전체	758	3.0	764	3.0	752	2.9	-6	-0.1p	-0.8	
성별	남자	477	3.3	474	3.2	471	3.1	-6	-0.2p	-1.3
	여자	281	2.7	290	2.7	281	2.6	0	-0.1p	0.1
연령	15~29세	256	6.3	266	6.4	270	6.7	14	0.4p	5.5
	· 15~19세	18	8.1	17	5.9	19	8.9	1	0.8p	7.8
	· 20~29세	238	6.1	249	6.5	250	6.5	13	0.4p	5.3
	30~39세	182	3.1	165	2.8	161	2.7	-21	-0.4p	-11.5
	40~49세	137	2.0	137	2.0	140	2.1	3	0.1p	2.1
	50~59세	115	2.2	126	2.3	124	2.2	9	0.0p	7.8
	60세이상	68	2.2	70	2.1	57	1.7	-11	-0.5p	-16.3
학력	중졸 이하	134	2.6	105	2.1	108	2.1	-26	-0.5p	-19.4
	고졸	335	3.4	347	3.4	331	3.3	-4	-0.1p	-1.1
	전문대졸	117	3.6	107	3.1	105	3.0	-12	-0.6p	-10.2
	대졸 이상	173	2.5	205	2.9	208	3.0	35	0.4p	20.5

자료: 통계청(2012.10), 『2012년 9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27만 명, 실업률 6.7%(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

- 남자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여자는 5.7%로 0.2%p 증가
- 학력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4.5%p, 전문대졸 1.3%p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실업자 수가 9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2.3%p) 증가

표 9.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전체	256	6.3	265	6.4	270	6.7	14	0.4p	5.4	
성별	남자	137	7.0	140	7.1	148	7.7	11	0.7p	7.9
	여자	119	5.5	125	5.8	122	5.7	3	0.2p	2.6
학력	중졸 이하	13	11.6	6	5.7	8	7.1	-5	-4.5p	-37.1
	고졸	110	6.7	117	6.7	115	7.2	6	0.5p	5.3
	전문대졸	61	5.5	47	4.4	47	4.2	-13	-1.3p	-22.2
	대졸 이상	73	5.8	95	7.8	99	8.1	26	2.3p	36.3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11만 2천 명, 실업률 2.0%(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

- 남자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하였고, 여자는 1.0%로 0.3%p 감소

표 10. 고령층(55~7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전체	112	2.2	126	2.3	112	2.0	0	-0.2p	-0.3	
성별	남자	84	2.8	96	3.0	88	2.7	4	-0.1p	4.3
	여자	28	1.3	30	1.3	24	1.0	-4	-0.3p	-14.2
학력	중졸 이하	68	2.2	62	1.9	56	1.7	-12	-0.5p	-17.9
	고졸	37	2.6	47	2.9	43	2.7	6	0.1p	15.4
	전문대졸	1	0.6	1	1.4	0	0.0	-1	-0.6p	-100.0
	대졸 이상	6	1.2	16	2.9	13	2.2	7	1.0p	112.5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2천 명 감소

- 활동 상태별로는 연로(15만 4천 명), 취업 준비(5만 1천 명), 정규교육기관 통학(2만 9천 명), 입학학원 통학(5천 명), 육아(5천 명) 등에서 증가
 - 반면 쉬었음(25만 명),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4만 7천 명), 진학 준비(3만 9천 명), 가사(5천 명) 등에서 감소
- 구직단념자는 20만 3천 명에서 18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 감소

표 11.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6,064	100.0	16,042	100.0	15,942	100.0	-122	-0.8
육아	1,452	9.0	1,447	9.0	1,458	9.1	5	0.4
가사	5,888	36.7	5,965	37.2	5,883	36.9	-5	-0.1
정규교육기관 통학	4,050	25.2	3,938	24.5	4,080	25.6	29	0.7
입학학원 통학	92	0.6	92	0.6	97	0.6	5	5.2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231	1.4	186	1.2	184	1.2	-47	-20.5
취업 준비	344	2.1	383	2.4	396	2.5	51	14.9
진학 준비	156	1.0	141	0.9	117	0.7	-39	-25.0
연로	1,630	10.1	1,810	11.3	1,784	11.2	154	9.4
쉬었음	1,655	10.3	1,548	9.7	1,405	8.8	-250	-15.1
기타	565	3.5	531	3.3	539	3.4	-26	-4.6
구직단념자	203	1.3	225	1.4	185	1.2	-19	-9.1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감소

- 취업 준비가 5만 2천 명,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3만 5천 명, 입시학원 통학이 5천 명 증가한 반면, 진학 준비(3만 9천 명), 육아(2만 9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2만 5천 명), 쉬었음(2만 4천 명) 등에서 감소
- 구직단념자는 4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 명 증가

표 12. 활동 상태별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462	100.0	5,369	100.0	5,458	100.0	-4	-0.1
육아	264	4.8	236	4.4	235	4.3	-29	-10.9
가사	116	2.1	118	2.2	114	2.1	-2	-1.8
정규교육기관 통학	4,010	73.4	3,902	72.7	4,045	74.1	35	0.9
입시학원 통학	92	1.7	92	1.7	97	1.8	5	5.2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68	3.1	141	2.6	143	2.6	-25	-15.0
취업 준비	240	4.4	286	5.3	291	5.3	52	21.6
진학 준비	153	2.8	138	2.6	114	2.1	-39	-25.3
쉬었음	316	5.8	334	6.2	292	5.4	-24	-7.7
기타	102	1.9	122	2.3	125	2.3	23	22.8
구직단념자	42	0.8	64	1.2	49	0.9	7	17.5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학력별로 세분하여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 고졸 이하의 경우 남자는 82.3%, 여자는 82.8%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 대졸 이상에서 남자는 취업준비(45.1%)와 쉬었음(19.8%)의 비중이 높고, 여자는 육아(29.2%)와 취업준비(24.6%), 쉬었음(13.3%)의 비중이 높음.

표 13.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별 활동 상태(2012. 9)

(단위: 천 명, %)

	남자				여자				계 인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2,581	100.0	199	100.0	2,256	100.0	421	100.0	5,458
육아	0	0.0	0	0.0	113	5.0	123	29.2	235
가사	2	0.1	1	0.3	56	2.5	55	13.1	114
정규교육기관 통학	2,125	82.3	26	12.8	1,869	82.8	25	6.0	4,045
입시학원 통학	55	2.1	1	0.6	41	1.8	0	0.0	97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40	1.5	31	15.6	38	1.7	34	8.0	143
취업 준비	68	2.6	90	45.1	30	1.3	103	24.6	291
진학 준비	57	2.2	4	2.0	39	1.7	14	3.4	114
쉬었음	144	5.6	39	19.8	53	2.3	56	13.3	292
기타	90	3.5	7	3.7	18	0.8	10	2.5	125
구직단념자	13	0.5	13	6.7	9	0.4	14	3.4	49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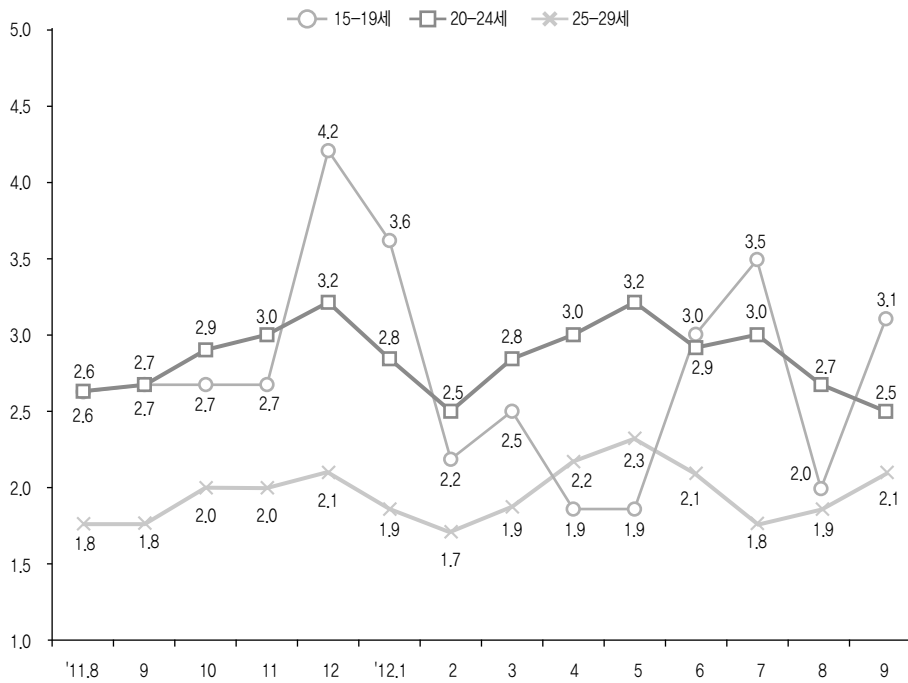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은 감소, 20대 후반은 증가

-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12년 9월 현재 20대 초반(20~24세)은 2.5로 2011년 9월의 2.7에서 7.4%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25~29세)은 2.1로 2011년 9월의 1.8에서 16.7% 증가

그림 3.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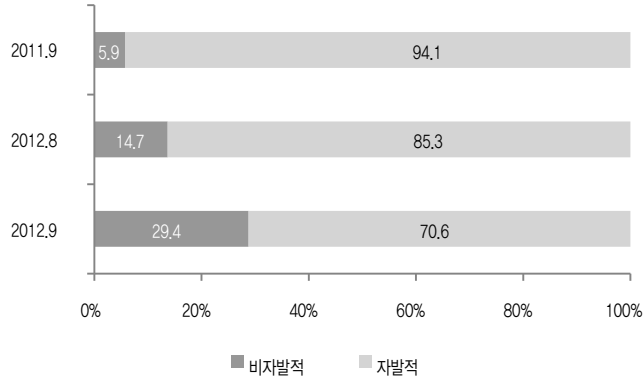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증가

○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하는 비율은 29.4%로 전년 동월 대비 23.5%p 증가

- 이는 작년 추석 연휴가 조사 대상 주간에 포함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침.

그림 4. 단시간 근로의 이유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증가, 고용률은 변화 없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는 7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 명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39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 증가, 반면 여자는 33만 5천 명으로 2천 명 감소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2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 증가,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44만 5천 명으로 1만 4천 명 증가

- 고용률은 14.3%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4.1%, 여자의 경우 14.4%로 남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31.0%로 전년 동월 대비 0.9%p 감소한 반면,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24.8%로 0.2%p 증가

표 1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722	14.3	877	16.9	729	14.3	7	0.0p	
성별	남자	385	14.1	479	17.1	394	14.1	9	0.0p
	여자	337	14.4	398	16.7	335	14.4	-2	0.0p
학력	전문대	198	31.9	231	34.9	205	31.0	6	-0.9p
	대학교	431	24.6	567	28.8	445	24.8	14	0.2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3%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성별로 남자는 15.3%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가 없는 반면, 여자는 15.3%로 0.4%p 감소
 -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2.8%로 전년 동월 대비 1.7%p 감소한 반면,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은 26.7%로 0.4%p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6.8%로 전년 동월 대비 0.8%p 감소
 - 성별로 남자는 7.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여자는 5.9%로 1.7%p 감소
 - 학력별로는 현재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5.4%로 전년 동월 대비 2.0%p 감소한 반면, 현재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7.1%로 0.5%p 증가

표 15.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전체	15.4	7.6	18.0	5.8	15.3	6.8	-0.1p	-0.8p	
성별	남자	15.3	7.7	18.3	6.6	15.3	7.5	0.0p	-0.1p
	여자	15.6	7.6	17.6	5.0	15.3	5.9	-0.4p	-1.7p
학력	전문대	34.5	7.4	37.7	7.5	32.8	5.4	-1.7p	-2.0p
	대학교	26.3	6.6	30.4	5.3	26.7	7.1	0.4p	0.5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중 주요활동 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19만 6천 명
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 감소하여 7.4% 감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인구는 45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증가

– ‘정규교육기관 통학’하는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은 25만 2천 명으로 전체의 55.7%를 구성하고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증가

표 16. 재학 중 취업 청년층(15~29세)의 주요활동 상태

(단위: 천 명, %)

	2011.9		2012.8		2012.9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444	100.0	603	100.0	452	100.0	8	1.7
일하였음	212	47.7	352	58.3	196	43.4	-16	-7.4
일시휴직	5	1.2	6	1.1	3	0.7	-2	-44.3
정규교육기관 통학	226	50.8	245	40.5	252	55.7	26	11.6
기타	1	0.3	0	0.1	1	0.2	0	-20.8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대 후반(25~29세) 대졸 이상 NEET족 규모 및 비율 증가

○ 청년 NEET족 규모는 8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

– 성별로는 남자는 3천 명 증가한 반면 여자는 1천 명 감소

- 연령별로는 10대(15세~19세)가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20대 초반(20세~24세)이 2천 명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1만 2천 명 증가
 - 학력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중졸 이하 4천 명, 고졸 9천 명, 전문대졸 1만 3천 명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은 2만 7천 명 증가
- 전체 청년층 대비 NEET족 비율은 8.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의 경우 0.1%p 증가
 -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0.8%p 증가한 반면 20대 초반(20~24세)과 10대 후반(15~19세)은 각각 0.8%p, 0.2%p 감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만 전년 동월 대비 1.8%p 증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NEET족 비율 감소

표 17.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9		2012.8		2012.9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인원수	NEET족 비율	증감		
							인원수	NEET족 비율	
전체	807	8.5	876	9.2	809	8.5	2	0.1p	
성별	남자	473	10.1	523	11.1	476	10.1	3	0.1p
	여자	335	6.9	353	7.4	334	6.9	-1	0.1p
연령별	15~19세	118	3.5	106	3.2	109	3.3	-8	-0.2p
	20~24세	351	13.2	417	14.8	349	12.4	-2	-0.8p
	25~29세	339	9.6	352	10.4	351	10.4	12	0.8p
학력	중졸 이하	37	1.4	34	1.3	33	1.2	-4	-0.1p
	고졸	459	11.9	510	12.8	450	11.7	-9	-0.2p
	전문대졸	124	9.3	124	9.4	112	8.2	-13	-1.0p
	대졸 이상	187	11.7	208	13.1	215	13.5	27	1.8p

주: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미혼 '가사'+'발령대기'+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결혼준비'+기타'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997년

(작성: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